

第65回

7月 8日, 成功



- …本會는 7月8日 本會 研究室…○
- …에서 第65回 發明教室을…○
- … 開催했다. 毎日 둘째…○
- … 土曜日 午後 1時에…○
- …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 … 이답에도 2백여명이…○
- …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 …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 … (株)카이저産業…○

裝飾用 빠꾸기 벽시계 發明人

카이저産業 張 鉉權 사장

‘88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 빠꾸기 울음소리를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裝飾用 빠꾸기 벽시계(實用新案 第 33656 號)를 出品하여 銅賞을 받은 카이저産業 張 鉉權사장은 그 동안 1억여원의 開發費를 투자하여 요번 7월중으로 日本에 大量輸出할 예정이다.

張사장이 시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1년전이다. 20대 후반의 張사장은 서울 청계천 시계도매상가에서 둘째 가라면 서워할 정도로 큰 시계 점포의 사장이 됐지만, 무리하게 事業을 擴張한 것이 화근이

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야말로 시골의 자갈밭 등을 모두 처분하고도 갚지 못했던 빚이 3억~4억은 족히 됐습니다.』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때는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그가 다시 시계에 손을 댄 것은 7년전이다.

『처음엔 妻男의 권유로 화공약품 輸入·製造에 손을 댔지만 전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내가 살길은 시계에 다시 손을 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다시 시계사업을 시작한 張사장은 소형시계대신 탁상시계나 패종시계로 業種을 바꿨다. 그러나 이런시계의 시보소리나 알람소리는 너무 단조로

운 일변도여서 이를 시정하여 3년전부터 자연의 음을 생생히 再現할 수 있는 빠꾸기시계 開發에 힘썼다.

사실, 이런 시계는 1백50여년전부터 스위스나 독일등지의 귀족들에게 裝飾用시계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다.

스위스나 독일이 機械式, 日本은 半機械와 半電子式.

張사장의 빠꾸기시계는 電子式.

개당 14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대중시계로서 각광을 받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앞으로 5억원정도를 더 투자하여 5만원의 生産單價를 낮추면 9만~10만원 정도로 판매할 수 있다며, 張사장은 자신에 찬 표정을 지어보였다.<♣>